

한국사회에서의 Holland 이론에 대한 문화적 타당도 연구

이상희(李相熙)* · 이세경(李濟慶)**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Holland 직업흥미이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함에 있어서 직업흥미유형 순환 순서 및 직업흥미구조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여 문화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C시와 A시, D군에 소재하고 있는 8개 대학(교) 재학생 4,559명으로서 연구대상의 직업흥미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노동부 직업선호도검사(한국고용정보원, 2001)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5.0 프로그램을 사용,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차원척도분석 등을 실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Holland의 순환순서기설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흥미유형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72개 예측치 중 59개가 일치하였고, 13개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Holland의 가정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둘째, Holland의 직업흥미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흥미유형은 Holland가 제시한 RIASEC의 순서가 아니라 R과 I의 위치가 바뀐 IRASEC의 순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업흥미구조는 정육각형이 아닌 육각형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흥미구조 역시 정육각형이 아닌 육각형 모형으로 나타난 만큼 일관성, 계층성 등 Holland의 주요 개념들을 수검자에게 적용하는 데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Holland의 기본적인 가설은 수용하되, 각각의 문화적 특수성이나 차별성을 반영하여 그의 이론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어 : 직업흥미이론, 순환순서기설, 직업흥미구조, 육각형모형

* 노동부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 교수(교신저자)

I. 서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자신 및 직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격, 흥미, 가치관, 능력 등 조건에 맞는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만족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진로지도의 기능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심리적 구성물을 진단하기 위한 직업심리검사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활용되고 있으며 Holland의 진로이론은 진로상담 장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공윤정, 2005)이다. 우리나라 역시 Holland 흥미이론에 기초한 직업심리 검사들을 개인의 직업흥미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직업들을 추천해주는 등 진로상담 장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김영빈(2000)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0년 1/4분기까지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에서 Holland이론에 기초한 적성탐색검사 및 진로탐색검사(1,169건)와 노동부 직업흥미검사(714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부(2003)에 따르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는 1998년부터 구직자와 청소년에 대한 직업선택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직업선호도검사 및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를 개발·보급되어, 2001년 507,879건 및 2002년 642,103건의 검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Holland 흥미이론에 대한 문화적 타당도, 즉 이 이론의 핵심개념들이 문화적 차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황매향, 2004),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역시 직업흥미이론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기존의 직업흥미검사의 활용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최동선, 정철영, 1997).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함께 대표적인 집단주의 국가로 분류(Hofstede, 1991, 한승우, 2003에서 재인용)되며 유교가 한국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을 문화적 적합성에 대한 검증 없이 진로상담의 현장에서 이용된다면 이는 진로교육의 대상자와 상담의 내담자들을 잘못 안내할 가능성이 많다(공윤정, 2005)

실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여섯 가지 직업흥미의 존재에 관련된 연구들은 각 흥미유형의 사람들이 독특한 능력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Spokane, Luchetta, & Richwine, 2002, 공윤정, 2005에서 재인용) 직업흥미구조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RIASEC 순환순서가 집단에 따라 다르며 직업흥미구조 역시 대부분 정육각형 구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문화권에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직업흥미구조가 성별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진로상담 현장에서도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제경,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 서북부 지역 대학생들의 직업선호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직업흥미유형이 RIASEC의 순서로 순환하는지, 그리고 직업흥미구조가 정육각형 모형으로 나타나는지 평가해 봄으로써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문화적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미국 사회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개발·전개되어 온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한국 사회 적용 가능성, 즉 문화적 타당도를 확인하고, 그의 이론을 토대로 개발된 직업흥미검사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 및 문화적 타당도 평가

1.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

Holland(1997)는 사람들의 직업흥미(vocational personality)유형을 현실형(Realistic type), 탐구형(Investigative type), 예술형(Artistic type), 사회형(Social type), 진취형(Enterprising type), 관습형(Conventional type) 등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흥미유형의 각 첫 글자(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취형-E, 관습형-C)로 그 흥미유형을 대표하였다. 그리고 각 개인은 6가지 흥미유형이 가지는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우세하게 지배하며, 특정 유형과 닮으면 닮을수록 그 유형의 성격 특성과 관련된 행동을 많이 나타내게 되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의 흥미유형과 일치하는 환경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각 흥미유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형은 물체, 도구, 기계 등을 대할 때 분명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교육이나 치료와 관련된 행동은 싫어하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재능이 부족하다.

둘째, 탐구형은 물리적 현상이나 생물학적 현상 또는 문화적인 현상을 관찰하고 상징적이고 체계적이고 창조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남을 설득하는 등의 사회적인 활동 또는 반복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이러한 경향들 때문에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능력은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게 된다.

셋째, 예술형은 자유로우며 비체계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반면, 분명하고 체계적이며 질서정연한 활동을 싫어한다. 이런 경향은 미술, 음악, 집필과 관련된 예술적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대신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능력은 부족하게 된다.

넷째, 사회형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 주고 훈련시키며 키우고 돌보는 것 같은 행동을 선호하지만, 물건이나, 도구, 기계 등을 다루는 일과 같은 분명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이러한 경향은 타인과 의사를 주고받거나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대인관계능력을 얻게 된 결과이며, 손이나, 기계를 활용하는 능력에는 부족한 경향이 있다.

다섯째, 진취형은 조직적인 목표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활동을 선호하지만, 관찰을 필요로 하거나 상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이러한 경향은 지도력, 대인능력, 설득력을 얻는 대신 과학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관습형은 기록하고 서류를 정리하며, 직무와 관련된 기계, 정보처리장치를 다루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유롭고 열성적이며 탐험적이거나 비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무적이고 기계적이며 체계적인 능력을 획득하도록 유도하면서, 예술적인 재능은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직업선택과 직업환경에서의 개인 수행에 관해 다음의 가정들을 제시하였으며 직업흥미유형 및 직업환경유형이 결정되는 과정과 직업적·교육적·사회적인 실제 현상 속에서 흥미유형과 환경유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첫째,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6가지 직업흥미유형 중에서 하나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6가지 직업환경유형이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하며 이런 특징들과 부합되는 문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자 한다.

넷째, 행동은 흥미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4가지 주요가정들은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 일치성, 계층성 등 개인과 환경에 적용되는 부가적인 가정들을 통해 지지되는데, 이것의 목적은 흥미와 환경에 관한 주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견하는 데 있다.

먼저 일관성(Consistency)이란 직업흥미유형과 환경유형 내의 하위 유형들이 서로 관련되는 정도로서 어떤 직업을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며 정육각형 모형 상의 두 유형 간 근접성에 따라 설명된다. 또한 이 개념은 흥미유형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유형에서도 적용된다.

변별성(Differentiation)은 사람이나 환경이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정 직업흥미유형과 유사하면서 다른 유형과는 유사하지 않을 수 있고, 환경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유형에만 지배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흥미유형과 골고루 유사한 사람이나 6가지 흥미유형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환경은 잘 구분되어지지 않게 된다. 이 변별성은 직업적 흥미 특성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

정체성(Identity)은 Holland 이론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포함된 개념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안정된 인생의 목표, 흥미, 재능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며, 환경적 정체성은 환경이나

조직이 분명하고 통합된 목표, 일, 보상이 일관되게 주어질 때 생긴다.

일치성(Congruence)은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적합성 정도에 대한 것으로서 사람의 직업적 흥미가 직업 환경과 어느 정도 맞는 지를 의미한다. 즉, 환경은 그 환경에 맞는 흥미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흥미유형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어떤 환경 모형이 그 환경에 맞지 않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와 보상을 주었을 때, 흥미유형과 환경유형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므로 환경에 맞지 않는 흥미유형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상을 좋아하지 않으며, 거기에서의 성취감을 낮게 느끼게 되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측성(calculus)은 흥미유형과 환경유형 간의 관계는 육각형 모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육각형 모형에서의 흥미유형 또는 환경유형 간의 거리는 그들의 이론적 관계와 반비례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계측성을 통해 육각형은 개인 흥미들에 대한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Holland는 흥미유형과 환경유형이 발달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원리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직업선택은 성격의 표현이다.

둘째, 흥미검사는 곧 성격검사이다.

셋째, 직업전형은 신뢰할 만하며 중요한 심리적·사회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넷째,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성장해 왔을 것이며, 성격도 유사할 것이다.

다섯째,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특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여섯째, 직업만족, 직업적 안정, 직업적 성취는 개인의 성격과 그들이 일하는 환경간의 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Holland(1997)는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성격과 생활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의 흥미 유형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을 6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환경유형은 흥미유형과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흥미유형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6가지 환경 유형으로서 현실적 환경(Realistic Environment), 탐구적 환경(Investigative Environment), 예술적 환경(Artistic Environment),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진출적 환경(Enterprising Environment), 관습적 환경(Conventional Environment)을 제시하였고 6가지 환경유형의 각 첫 글자(현실형-R, 탐구형-I, 예술형-A, 사회형-S, 진출형-E, 관습형-C)로 그 환경유형을 대표하였다. 이 환경유형은 흥미유형과 대응되고 일치된다.

Holland는 직업흥미유형과 직업환경유형에서 각 유형간의 관계를 정육각형 모형으로 표현하

고 있다. 이러한 Holland이론의 구조적 가설을 Round, Tracey & Hubert(1992)는 순환순서가설(Circular order hypothesis)와 주변관계가설(Circumplex hypothesis)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순환순서가설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흥미와 환경 유형이 육각형 모형 상에서 R-I-A-S-E-C의 순으로 순환·배치되며, 그 각각의 유형은 육각형 모형에서의 위치에 따라 가까이 위치할수록 두 유형 간의 유사성은 증가하고 위치상의 거리가 멀수록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R-I, I-A, A-S, S-E, E-C, C-R의 유사성이 R-S, I-E, A-C의 유사성보다 크다는 것이며 육각형 모형에서 중간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R-A, R-E, I-C, I-S, A-R, A-E는 중간 수준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

주변관계가설은 순환순서가설에 한 가지를 더 포함한 것으로서 근접한 유형들(RI, IA, AS, ES, EC, CR)끼리의 상관이 같고, 한 유형 건너에 있는 유형(RA, IS, AE, EC, ER, CI)끼리의 상관이 같으며, 육각형의 정반대에 있는 유형(RS, IE, AC)끼리의 상관은 같다는 것이다.

2. Holland이론에 대한 국내·외 주요선행연구

이러한 Holland 이론의 문화적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미국 내 타민족에 있어서의 연구,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연구 및 우리나라 문화권에서의 순환순서가설과 정육각형모형에 대한 문화적 타당도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Holland 직업흥미이론에 대한 미국 내 타민족에서의 문화적 타당도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인종 문화인 미국 사회에서 Holland 육각형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대부분은 육각형 모형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것이 정육각형에 가까운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Rounds & Zevon, 1983, 임연, 진미석, 2001에서 재인용). Fouad, Cudeck, & Hansen(1984)는 미국 내의 스페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역시 C와 E형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averkamp(1987)는 미국원주민 출신과 아시아 태평양섬 지역출신 아프리카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업흥미구조가 육각형 모형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나, 직업흥미유형의 순환순서는 C와 E가 바뀐 R-I-A-S-C-E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Swanson(1992)은 아프리카인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제한적으로 직업흥미유형들이 육각모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직업흥미유형의 순환순서 역시 Holland가 주장한 것처럼 RIASEC의 순서인 것을 확인하였다.

아시아계 문화권에서의 Holland 직업흥미이론에 대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Yu와 Alvi(1996)는 중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Holland의 육각형 모

형을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Farh와 Leong(1998)은 홍콩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Holland 모형의 내·외적 타당도를 모두 지지하지만 중국적 전통 가치를 강하게 가진 학생들에게 Holland 직업흥미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Fouad, Harmon과 Borgen(1997)의 연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남자와 여자 모두의 직업흥미유형이 R-I-A-S-E-C의 순서로 순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R-I와 S-E-C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모여 있어서 육각형 보다는 삼각형의 구조를 띄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에는 R-I와 S-E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Holland 직업흥미구조를 탐색한 Tracey, Watanabe와 Schneider(199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흥미유형순서는 일본과 미국 대학생 양쪽 모두 RIASEC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육각형 구조는 일본보다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의 Holland 이론에 대한 문화적 타당도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탁진국(1995)의 연구 결과에서는 다차원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직업흥미유형이 RIASEC의 순서로 나타나 Holland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으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직업성격 구조를 이차원 상에 위치시켰을 때 남학생은 R-I가 매우 가깝고(Stress=.002), 여학생은 E-C가 매우 가까운 구조(Stress=.053)를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학생의 직업흥미 구조가 육각형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임연과 진미석(2001)은 진로탐색검사 및 적성탐색검사 결과를 토대로 규준집단의 상관행렬표 및 다차원분석을 통하여 순환순서모형을 연구한 결과, 순환순서모형의 커다란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완전히 적합하지는 않고, 다차원분석을 통해 중학생(IRASEC)과 고등학생(RCIASE)의 직업흥미유형의 순서가 모두 Holland가 제시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흥미구조가 육각형 모형에서 더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민희, 성태제(2001)는 종합진로적성검사(박도순 외, 2000)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Round, Tracey 그리고 Hubert(1992)가 제시한 상관분석과 무작위 검사 분석 결과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직업흥미구조는 Holland의 직업흥미유형 순환순서가설에 의해 설명하기 어려우며, LISREL 8.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육각형 모형상에서 각 직업흥미유형 간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다차원분석 결과는 고등학생들의 직업성격이 Holland의 주장과 달리 RIEASC의 순서로 순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태제, 시기자(2001)는 각 유형 간의 상관분석 결과 Holland의 6유형 중 I와 E, C와 S의 관계를 제외하고 인접유형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Holland 모형의 구조적 가설을 어느 정도 지지하였다. 특히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2004)은 Holland의 직업흥미구조에 관한 가설을 가장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두 집단의 흥미 구조는 모두 RIASEC의 순서를 만족시켰으며 흥미구조는 육각형 모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각 연구 결과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lland의 순환순서가설과 주변관계가설에 대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진로상담 및 지도를 위해 2006년 2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노동부 C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충남 서북부지역의 8개 대학(교) 신입생 4,634명에 대한 직업선호도검사(한국고용정보원, 2001)의 하위검사인 직업흥미검사 결과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중 직업흥미 6개 유형 모두에서 0점을 받았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 자료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75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된 4,559명 중 남자대학생은 2,133명(46.8%)이었고 여자대학생은 2,426명(53.2%)이었으며, 연령은 모두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Holland의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한 노동부 직업선호도검사(이하 '선호도검사') 2001년 개정판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직업흥미유형별 원점수와 직업흥미코드를 확인하였다. 선호도검사는 1997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였고, 이후 200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구 '중앙고용정보원')에서 개정연구를 실시, 2001년 개정판이 보급되었다. 이 검사는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검사의 세 가지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검사는 활동(48문항), 유능성(31문항), 선호직업(66문항), 선호분야(42문항), 일반성향(60문항) 등 다섯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신뢰도(Cronbach- α)¹⁾ 계수는 모두 .85 이상이었으며 재검사 신뢰도 계수 역시 사회형(.8886)과 관습형(.8965)을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또한, 개정판의 경우 구성요인별 내적 신뢰도 계수가 검사 개발 시와 마찬가지로 모두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개발시보다 약 .3~.4 정도 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내적일관성에 의한 척도의 신뢰성 평가방법으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음. 다만, 흔히 .8~.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6~.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기며 .6보다 작으면 내적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그리고 검사결과 제시되어지는 흥미코드는 각 흥미유형의 원점수 중 크기가 큰 순서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흥미유형의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였다. 흥미유형의 우선 순위는 흥미유형 빈도가 적은 순에 따라 결정하였는데, 남자는 '현실형(R)>진취형(E)>사회형(S)>탐구형(I)>예술형(A)>관습형(C)'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사회형(S)>관습형(C)>예술형(A)>진취형(E)>탐구형(I)>현실형(R)'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검사는 수검자가 만족할 만한 직업으로서 최적직업과 적합직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업환경의 보편성을 전제로 Holland가 흥미코드별로 분류한 SDS(Self Directed Search)의 직업목록 1334개를 도입·번역한 것이다(한국고용정보원, 1999).

3. 자료의 분석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이 한국에서도 문화적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내적 타당도의 준거로 Holland의 이론이 전제로 하고 있는 구조적 가설인 순환순서가설(Circular order hypothesis)과 정육각형 모형에 대한 직업흥미구조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구조적 가설 중 순환순서가설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각 흥미유형 간 상관계수를 비교 분석하여 순환서열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Holland(1997)는 6가지 흥미유형은 육각형 모형 상에서 일정한 순서로 순환하고 각 유형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육각형 모형 상의 거리에 따라 계산되어지며 인접한 유형들이 가장 유사하며 반대 유형일수록 다르게 된다는 가정 하에 표 1과 같이 직업흥미유형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이론적 서열관계를 토대로 실제 연구결과 확인된 흥미유형들의 서열관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Holland 정육각형 모형에 대한 직업흥미구조에 대하여는 다차원분석을 사용하였다. 이 다차원분석을 각 직업흥미유형간의 유사성에 대한 거리를 2차원상에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특성(좌표축)에 따라 개체들이 정렬되므로 개체들을 순서화하고, 그에 따라 제시된 모형이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와 더불어 Prediger의 2차원상 분류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 외에도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1> 주변관계가설에 의하여 예측되는 크기 관계(서민희, 2001)

	RI	RA	RS	RE	RC	IA	IS	IE	IC	AS	AE	AC	SE	SC	EC
RI		>	>	>	=	=	>	>	>	=	>	>	=	>	=
RA	<		>	=	<	<	=	>	=	<	=	>	<	=	<
RS	<	<		<	<	<	<	=	<	<	<	=	<	<	<
RE	<	=	>		<	<	=	>	=	<	=	>	<	=	<
RC	=	>	>	>		=	>	>	>	=	>	>	=	>	=
IA	=	>	>	>	=		>	>	>	=	>	>	=	>	=
IS	<	=	>	=	<	<		>	=	<	=	>	<	=	<
IE	<	<	=	<	<	<	<		<	<	<	=	<	<	<
IC	<	=	>	=	<	<	=	>		<	=	>	<	=	<
AS	=	>	>	>	=	=	>	>	<		>	>	=	>	=
AE	<	=	>	=	<	<	=	>	=	<		>	<	=	<
AC	<	<	=	<	<	<	<	=	<	<	<		<	<	<
SE	=	>	>	>	=	=	>	>	>	=	>	>		>	=
SC	<	=	>	=	<	<	=	>	=	<	=	>	<		<
EC	=	>	>	>	=	=	>	>	>	=	>	>	=	>	

※ '<'는 열(column)의 값이 행(row)의 값보다 더 크다는 것을 뜻하고 '>'는 행의 값이 열의 값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4. 자료 분석 도구

직업흥미유형 원점수와 직업흥미코드 등 노동부 직업선호도검사에 대한 결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입력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이 한국 사회에서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적 타당도 준거로서 그의 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순환순서가설(Circular order hypothesis)과 정육각형 모형의 적합성을 분석을 위해 모든 분석은 사회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for Windows versio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연구에서는 Holland 직업흥미이론을 한국사회에서의 적용함에 있어 문화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흥미유형이 RIASEC의 순환 순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순환 순서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직업흥미구조가 정육각형 모형으로 나타나는지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평가해 보았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업흥미유형 및 직업흥미코드

연구대상의 첫 번째 직업흥미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본 직업흥미유형 빈도는 사회형(34.3%), 진취형(23.8%), 예술형(23.5%), 관습형(8.7%), 현실형(6.0%), 탐구형(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 흥미유형의 평균은 사회형(M=16.6, SD=7.2), 진취형(M=14.9, SD=7.4), 예술형(M=13.9, SD=7.5), 관습형(M=10.7, SD=6.5), 현실형(M=7.6, SD=6.1), 탐구형(M=7.3, SD=6.5) 순이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직업흥미유형 빈도는 남자의 경우 진취형(29.9%), 사회형(26.5%), 예술형(18.4%), 현실형(11.1%), 관습형(9.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탐구형(5.1%)이 가장 적은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여자는 사회형(41.2%), 예술형(28.0%), 진취형(18.4%), 관습형(8.5%), 탐구형(2.4%), 현실형(1.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숙자(2003), 박광섭, 임정섭(2003)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사회에서는 여학생들이 보다 더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황매향(2004)의 연구결과²⁾나 노동부 직업선호도검사 개정 연구(한국고용정보원, 2001a) 결과³⁾ 제시된 직업흥미유형 빈도와 전혀 다른 것으로서 연구 대상에 따라 직업흥미유형의 분포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흥미유형의 분포는 모든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나 개인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직업선호도검사에서는 직업흥미검사 결과 제시되는 직업흥미코드 산출 시 직업흥미유형 빈도가 적은 순서에 따라 직업흥미유형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연구 결과 확인된 성별에 따른 직업흥미유형의 빈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의 직업흥미코드 부여 기준이 타당한 지에 대한 제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흥미검사 결과 제시된 연구대상의 직업흥미코드는 SE(13.7%), SA(11.6%), AS(10.8%), ES(9.9%) 등 코드 조합 시 나타나는 직업흥미코드 30개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자의 경우에는 ES(12.4%), SE(11.6%)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SA(45.9%), SE(15.8%), AS(14.8%)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황매향은 연구 결과 남자의 경우 탐구형 > 진취형 > 사회형 > 현실형 > 예술형 > 관습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예술형 > 탐구형 > 사회형 > 관습형 > 진취형 > 현실형의 순서로 나타났음을 보고함.
- 3) 노동부 직업선호도검사 개정 연구(한국고용정보원, 2001) 결과 남성 모집단의 흥미유형 빈도는 '현실형 > 진취형 > 사회형 > 탐구형 > 예술형 > 관습형'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형 > 관습형 > 예술형 > 진취형 > 탐구형 > 현실형' 순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함.

2. 순환순서가설

각 직업흥미유형 간 상관과 상관크기에 따른 순환서열 관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직업흥미유형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5개 상관 중 현실형과 사회형의 상관($p>.05$)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다($p<.05$).

<표 2> 직업흥미유형 간 상관행렬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현실형						
탐구형	.395**					
예술형	.063**	.221**				
사회형	-.005	.073**	.305**			
진취형	.151**	.153**	.262**	.362**		
관습형	.045**	.187**	.033*	.244**	.350**	

* : $p<.1$, ** : $p<.05$

Holland가 제시한 직업흥미유형의 상관 크기에 따른 순환서열관계에 의하면 6개의 인접한 유형들(RI, IA, AS, SE, EC, CR)의 상관은 한 칸 건너 유형들(RA, AE, ER, IS, SC, CI)의 상관보다 커야 하며 또한 반대편 유형들(AS, IE, AC)의 상관보다도 커야 한다. 그리고 한 칸 건너 유형들의 상관은 반대편 유형들의 상관보다 커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72개의 순서 예측치 가운데 59개가 일치, 나머지 13개는 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민희, 성태제(2001)의 연구 결과보다 Holland의 순환순서가설과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임으로써 Holland 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민희, 성태제(2001)의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흥미구조는 Holland의 순환순서가설에 의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국 대학생의 직업흥미유형 순환서열관계가 Holland의 이론에 위배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RC(현실형-관습형)와 다른 인접 유형 간 순환서열관계 예측치 9개 중 7개가 불일치한 것에 기인한다. 이것은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Holland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형과 관습형의 상관관계수가 .045로서 매우 낮게 나타난 것과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RC의 직업흥미 프로파일의 불안정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C의 직업흥미코드는 가지고 있는 연구대상의 직업흥미 프로파일은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실형(16.1점)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직업흥미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관습형(10.6점), 사회형(6.7점), 진취형(6.6점)의 점수 차이가 4점 이내로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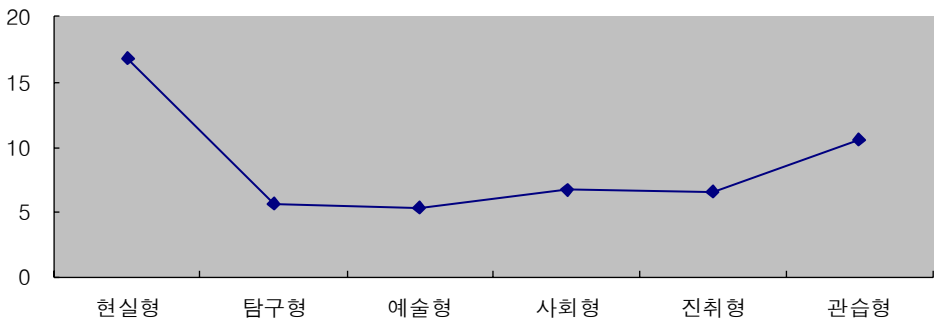
<표 3> RIASEC 순환 서열관계 비교 분석표

	RI	RA	RS	RE	RC	IA	IS	IE	IC	AS	AE	AC	SE	SC	EC
RI		0	0	0			0	0	0		0	0		0	
RA			0					1				0			
RS															
RE				0				1				0			
RC		1	0	1			1	1	1		1	0		1	
IA		0	0	0			0	0	0		1	0		1	
IS			0					1				0			
IE															
IC			0					0				0			
AS		0	0	0			0	0	1		0	0		0	
AE			0					0				0			
AC															
SE		0	0	0			0	0	0		0	0		0	
SC			0					0				0			
EC		0	0	0			0	0	0		0	0		0	

* '0'은 각 직업흥미유형들의 이론적 상관관계가 일치할 경우

* '1'은 각 직업흥미유형들의 이론적 상관관계가 다를 경우

것은 두 자리 직업흥미코드가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흥미유형의 순환순서에 있어서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는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의 순환 서열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RC 유형의 직업성격패턴

4) 노동부 직업선호도검사(2001)는 각 직업흥미유형 간의 원점수 차가 4점 이상이 될 때 유의미함.

그리고 성별에 따라 직업흥미유형의 순환서열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직업흥미유형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남자와 여자의 경우 모든 직업흥미유형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 < .05$) 남자의 경우에는 사회형과 진취형이 .427로, 여자의 경우 현실형과 탐구형의 상관계수가 각각 .41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직업흥미유형의 순환서열관계 비교 분석 결과는 남자의 경우 72개의 순서 예측치 가운데 60개가 일치하고 12개가 위배되었으며 여자는 58개 예측치가 일치하고 14개가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순환순서가설은 한국 사회의 남자 대학생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3. 직업흥미구조

한국의 표본에서도 직업흥미구조가 Holland가 주장하는 정육각형 모형이 반영되는지, 아니면 정육각형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차원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Analysis: MDS)을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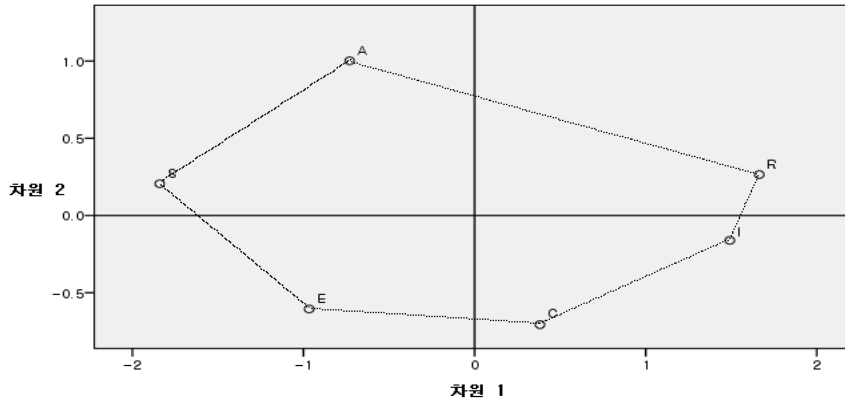
2-way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분석 결과는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Stress 값은 .00403으로 Kruskal⁵⁾의 해석 기준에 따르면 아주 좋은 수준(excellen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추정 오차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모형에 적합하게 추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원자료와 계산된 추정거리 간 관계의 비율을 알 수 있는 2-way의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에 대한 상관관계제곱(RSQ)은 .99989로서 원자료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흥미유형의 순환 순서는 Holland(1997)가 제시한 RIASEC이 아니라 R과 I가 뒤바뀐 IRASEC(시계 반대방향)의 순서였으며 임언, 진미석(2001)이 보고한 중학생의 직업흥미유

<표 4> 2-way MDS에 의한 모형합치도

자극수	자극(변수)	차원1	차원2
1	현실형	1.6638	.2651
2	탐구형	1.4916	-.1609
3	예술형	-.7302	1.0013
4	사회형	-1.8402	.2059
5	진취형	-.9671	-.6050
6	관습형	.3821	-.7064
Stress	.00403	RSQ	.99989

5) Kruskal은 적합도 판정기준(이용구, 정해운, 1995, 재인용)을 Stress 값이 0일 경우 완벽(perfect), 0.25일 경우 아주 좋음(excellent), 0.5일 경우 좋음(good), 0.10일 경우 적당함(fair), 0.20이상일 경우 적당하지 않음(poor)으로 설정함



[그림 2]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직업흥미구조의 위치

형 순환 순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순서의 변동에 따라 R과 A, C와 I가 인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I와 체계적인 것을 선호하는 C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직업흥미구조는 그림 2와 같이 R과 I가 공간적으로 매우 가깝고, A와 R의 거리가 다른 유형에 비해 먼 것으로 나타나 정육각형이 아닌 육각형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Fouad, Dandcer(1992), Yu, Alvi(1996), Fouad, Harmon, & Borgen(1997), Tracey, Watanabe, & Schneider(1997),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실제 직업흥미구조는 정육각형이 아닌 육각형에 더 가까운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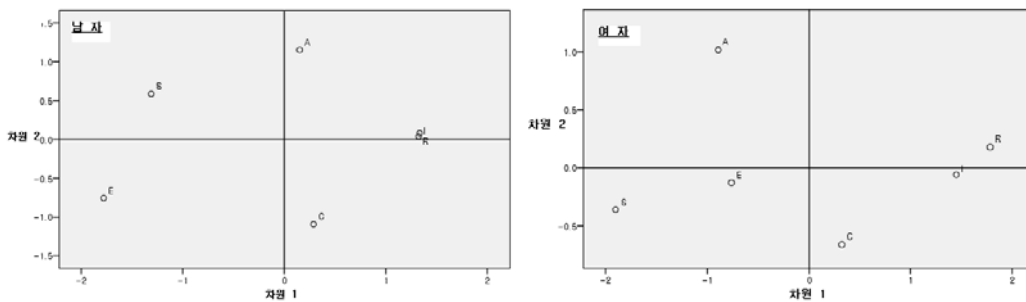
그리고 직업흥미유형을 이차원 상에 위치시켰을 때 각 유형은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되었는데, 차원1(가로축)을 기준으로 현실형, 탐구형, 관습형 대 사회형, 진취형, 예술형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차원2(세로축)를 기준으로 볼 때 예술형 대 진취형, 관습형으로 확연하게 나누어짐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Prediger(1982)가 사물(things)/사람(people) 차원으로 현실형, 탐구형, 관습형 대 사회형, 진취형, 예술형을 구분하고, 사고(ideas)/자료(data) 차원으로서 탐구형, 예술형 대 진취형, 관습형으로 구분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2-way 다차원척도법에 의한 분석 결과는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형의 추정치에 있어 Stress 값은 남자와 여자 각각 .01195, .00992로 아주 좋은(excellent)수준으로서 이는 추정 오차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모형에 적합하게 추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원자료와 계산된 추정거리 간 관계의 비율을 알 수 있는 2-way의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에 대한 상관관계제곱(RSQ)은 남녀 각각 .99893, .99938 으로서 원자료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성별에 따른 2-way MDS에 의한 모형합치도

차극수	차극(변수)	차원1		차원2	
		남	여	남	여
1	현실형	1.3334	1.7828	.0827	.1831
2	탐구형	1.3233	1.4456	.0376	-.0587
3	예술형	.1485	-.8911	1.1546	1.0158
4	사회형	-1.3106	-1.8993	.5865	-.3560
5	진취형	-1.7820	-.7623	-.7644	-.1284
6	관습형	.2874	.3233	-1.0971	-.6558
Stress		남 : .01195		여 : .00992	
RSQ		남 : .99893		여 : .99938	

성별에 따른 직업흥미구조는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남자의 직업흥미유형이 Holland가 제시한 RIASEC의 순서로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은 한국 사회 남자 대학생에게 더 적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탁진국(1995)과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2004)은 직업흥미유형이 Holland(1997)가 제시한 RIASEC의 순서로 순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서민희, 성태제(2001)의 한국 고등학생의 직업흥미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흥미유형이 RIEASC의 순으로 나타났고, 임언, 진미석(2001)의 한국 중·고등학생의 직업흥미에 관한 연구 결과 고등학생은 RCIASE, 중학생은 IRASEC의 순서로 순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흥미유형의 순환 순서 역시 개인이나 집단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차원 상에서의 직업흥미유형 위치는 R과 I가 거리상으로 지나치게 가깝게 모여 있어 오각형에 가까운 모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직업흥미유형의 순환 순서(시계 반대 방향 기준)가 IRASEC의 순서로 나타나 Holland의 주장과는 달리 R과 I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흥미구조 역시 육각형이 아닌 찌그러진 다각형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탁진국(1995)의 ‘여자의 직업흥미구조가 육각형에 근접하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Holland(1985)가 ‘여성에 대한



[그림 3] 성별에 따른 직업흥미구조

자료는 남성의 자료보다 더 기이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시사점 및 제언

Holland 직업흥미이론은 복잡한 흥미구조를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진로상담 장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가정을 기초로 하여 한국 사회 대학생들의 직업선호도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순환순서가설 및 직업흥미구조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Holland 직업흥미이론에서 제시하는 직업흥미유형의 순환 순서를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상담자는 직업흥미검사 결과 제시되어지는 직업흥미유형의 프로파일을 해석함에 있어 개인차나 문화차 등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흥미유형 간 상관의 크기가 Holland가 가정하고 있는 것과 상이하고, 직업흥미구조가 정육각형이 아닌 육각형 모형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관성, 계측성 등 Holland의 주요 개념들을 수검자에게 적용하는 데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흥미유형의 순환 순서나 직업흥미구조 분석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서 Holland의 기본가정과는 좀 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및 진로 상담 시 개인, 집단,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하는 등 '이론의 적용과 검사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상담자의 창의적 접근이 필요(이제경, 2007)'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Holland이론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에 있어 직업흥미유형의 순환 순서 및 직업흥미구조에 일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의 직업흥미유형의 순환 순서 및 직업흥미구조가 Holland의 기본 가설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Holland의 직업흥미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Holland의 기본적인 가설은 수용하되, 각각의 문화적 특수성이나 차별성을 반영하여 그의 이론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Holland 직업흥미이론을 토대로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Holland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가정들이 한국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래의 몇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 및 직업상담 장면에서 Holland 이론을 상당 부분 활용하고 있으므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 측정 시 많은 검사도구들이 Holland 직업흥미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외적 타당도 확보 등 활용도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Holland 직업흥미이론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Holland는 직업흥미유형이 성별, 직업,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들 또한 그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문화적 타당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내적 타당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검사도구로 사용하는 직업심리검사의 지필검사로써 갖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언어적 능력, 학업성취 정도, 직업 경험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연구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5. 제한점

이 연구 결과의 도출에 있어 일반화 등 연구결과의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8개 대학(교)의 신입생 4,55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개인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개인의 경험이 특징적인 기질을 만들고 관심이나 흥미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때 비로소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서민희, 2001)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이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하여 흥미 분화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직업선호도검사 중 직업흥미검사를 통한 직업성격코드 조합 시 각 흥미유형의 원점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 코드만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직업흥미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개인에게까지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다차원분석법은 공통의 특성을 갖는 개체 간의 그룹화에 의해 해석하고, 중요한 특성(좌표축)에 따라 개체들이 정렬되므로 개체 간의 순서화에 의하여 해석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좌표상의 지도는 단지 유사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차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해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998). 직업선호도 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 공윤정 (2005). Holland 이론의 문화적 적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담학연구, 6(4), 1225-1244.
- 곽필순, 김봉환 (2005). Holland의 직업성격과 직업환경의 일치도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6(3), 837-848.
- 김계현, 황매향, 선혜연, 김영빈 (2004). 상담과 심리검사. 서울: 박문각.
- 김병숙, 김봉환, 김완석, 이종목 (1999). 직업심리학. 서울: 박문각.
- 김영빈. (2000). 청소년 상담에서 심리검사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1a). Strong 직업흥미검사.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1b). 한국 스트롱 직업흥미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383-405.
- 김충기 (2003).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 노동부 (2003). 노동백서(2003년판). 경기도: 노동부.
- 서민희 (2001). 한국고등학생들에 대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문화간 타당도 평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서민희, 성태제 (2001).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Holland 직업흥미이론의 문화적 타당도 평가. 교육평가연구, 14(1), 237-262.
- 성태제, 시기자 (2001). Holland와 Prediger의 직업흥미이론에 근거한 고등학생용 직업선호도 검사 개발과 양호도 검증. 교육심리연구, 15(4), 269-295.
- 안창규, 안현의 공역 (2004). 홀랜드 직업선택이론(MVC).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종승 (2002). 대학생용 진로탐색 개발연구. 교육학 연구, 40(4), 1-29.
- 이제경 (2007). 홀랜드 이론의 이해와 한국진로상담에의 적용. 제2회 진로개발직업상담 콜로키움 자료집, 1-9.
- 이채희 (2001). 직업선호도검사 타당화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현립, 최창식, 박인숙 (2004).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인성유형과 진로선택 경향의 분석. 상담학연구, 5(4), 1081-1094.
- 이현민, 김봉환, 김병숙, 최응용 (2003). 현대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안창규 (1996). 진로 및 적성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서울: 가이던스.
- 임언, 진미석 (2001). 홀랜드 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14, 107~120.
- 전진수, 김완석 (2000). 직업상담을 위한심리검사 개요. 서울: 학지사.
- 정철영, 이종범, 이성식 (2002). 우리나라 주요 표준화 진로검사 도구의 실태 분석. 한국진로교육 학회지, 15, 1-20.
- 최동선, 정철영 (1997). Holland의 직업적 성격과 교육적 행동양식과의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7, 187-203.
- 최숙자 (2003). 고등학생의 Holland 진로 유형 성격과 적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 탁진국 (1995).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lland 직업흥미모형의 구성 타당도 검증.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논문집, 24, 9-19.
- 한국고용정보원 (2001a). 직업선호도 검사 실시요람.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 (2001b). 직업선호도검사 상담가이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 (2002).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사용자가이드. 서울: 한국산업인력공단.
- 황매향 (2004). 대학생의 진로선택을 중심으로 한 Holland 이론의 문화 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53~666.
- Fouad, N. A., & Dancer, L. S. (1992). Cross-cultural structure of interests: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129-143.
- Fouad, N. A., Cudeck, R. A., & Hansen, F. C. (1984) Convergent validity of the Spanish and English forms of the Strong-Campbell Interest Inventory of bilingual Hispanic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39-348.
- Fouad, N. A., Harmon, L. W. & Borgen, F. H. (1997). Structure of Interests in Employed Male and Female Members of U.S. Racial-Ethnic Minority and Nonminority Grou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4).
- Glidden-Tracey, C. E., & Parraga, M. I. (1996). Assessing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among Boliv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96-106.
- Gonzalez, R. (1996). Circles and squares, spheres and cubes: What's the deal with circumplex model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77-84.
- Haverkamp, B. E. (1987). The structure of interests in four minority student popu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96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NY.

- Holland, J. L. (1985). *The Self-Directed Search: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rediger, D.J. (1982). Dimensions underlying Holland's hexagon: Missing link between interests and occup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1*, 259-287.
- Rounds, J. Tracey, T. J., & Hubert, L. (1992). Methods for evaluating vocational interest structural hypothe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239-259.
- Swanson, J. L. (1992). The structure of vocational interests for Afr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0*, 144-157.
- Tracey, T. J. (1991). RANDORD: A program for evaluating Holland's and Gati's order hypotheses using the randomization test of hypothesized order relationships(Computer program). Champaign, IL: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Wakefield, J. A., Jr., Yom, B. L., Doughtie, E. B., Chang, W. C., & Alston, H. L. (1975). The geometric relationship between Holland's personality typology and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for blacks.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22*, 58-60.

* 논문접수 2008년 5월 1일 / 1차 심사 2008년 5월 19일 / 2차 심사 2008년 6월 16일 / 게재승인 2008년 6월 20일

* 이상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 인력개발 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에서 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직업상담원으로 노동부 부천고용지원센터에 입사하여 현재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에 근무 중이다.

* e-mail: step1971@dreamwiz.com

* 이제경: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상담원, 미네소타대학의 교육심리학과 초빙연구원,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전문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 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와 테크노 인력개발 전문대학원에서 진로 및 직업상담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ljk0314@kut.ac.kr

Abstract

A Cultural Validity Study on the Holland's theory in Korea

Sanghee Lee* · Jeky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pply Holland's career theory to Korean society by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se theories through circular order hypothesis and equidistant hexagonal structu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559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in 'C'-si, 'A'-si, 'D'-gun. The measuring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Work Information Center, 2001).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correlation analysis, MD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etc) was used by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15.0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and making a comparative study about relation of circular order between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appeared that 59 of 72 corresponded Holland's hypothesis.

secondly, as the result of analyzing MDS, Korean students's the circular order of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were found out in order of I-R-A-S-E-C, and the structure of vocational personality was not the equidistant hexagonal structure, but the hexagonal structure.

In conclusion, the circular order of vocational personality types were different from Holland's hypothesis.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ably at the base of cultural distinctiveness. And structure of vocational personality was the hexagonal structure. Therefore career counselor should be approached with prudence when counseling Korean students to apply to consistency and calculus of vocational personality. In other words, we should be accept Holland's career theory at the base of cultural distinctiveness.

Key words: vocational personality theory, circular order hypothesis, structure of vocational personality, hexagonal structure

* Cheonan Job-center, Ministry of Labor

** Professor of Vocational psychology and Counseling at The Techno Human Resourc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in the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KUT)